현대자동차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연구개발

[자동차, 개인적인 공간으로의 탈바꿈]

현대인이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자동차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또 다른 개인적인 공간이 창출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공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가고바꾸고자 하는 욕구에 맞게 자동차 또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이끌기 위한 발전으로 저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파워트레인장치에 주목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친황경차량 개발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현재 세계 유명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파워트레인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 현대자동차에서 독자적인 파워트레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는데 있어 차량의 소재나 배터리관련 사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파워트레인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의 연비를 개선하면서 친환경적인 차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점이 점점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공학도로서 교내에서 배운 자동차와 관련된 지식들과 여러 사회경험을 통해 얻은 팀원과의 소통 및 협력정신 그리고 공학도로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로 현대자동차의 독자성을 가진 파워트레인 개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복합적인 기술력을 이해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아갈 것이며 나아가 제가 습득한 지식을 통하여 연구 개발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파워트레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사의 R&D연구원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정체되지 않는 발전가능성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 - 장난감이 꿈이되다!]

어렸을 적에 간단한 부품 몇개로 구성된 미니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모터를 이용하여 미니카를 제작할 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미니카를 보면서 자동차에 대해 첫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의 2년간은 이러한 저의 관심이 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준 기간 입니다. 차량정비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차량의 구동방식 및 다양한 장치들로 이루어진 차량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기계공학도인 저는 좀 더 유심히 보게 되었고, 겉으로 보여지는 다른 장치들과는 다르게 차량의 심장인 엔진/변속기의 내부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정비를 하면서 주의깊게 보고자 하였습니다. 수많은 부품들과 호환하면서 구동되는 모습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으며, 단순히 엔지니어에서 경쟁력 있는 엔진/변속기 설계엔지니어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 공학도의 관점 - 실패, 그리고 발전 ]

제가 군생활을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는동안 언덕길에 주차된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려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저는 "왜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주차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주차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였습니다. 교내 통합설계 수업을 통하여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고안한 아이디어를 실용적인 제품으로 구현한다는 것에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이 아이디어가 실용적인지 판단하고자 실제차량으로 모의실험도 진행하고, 전문적인 자료와 교수님과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제품을 출시할 시장을 직접 조사하며 목표로하는 시장층을 선정하는 등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한 프로젝트 였습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왜 생각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팀원과의 토의를 통해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제품을 고안하고 제작하기 까지의 과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를 공학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수정하여 완성시키고자 했던 경험은 R&D분야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팀플레이 - 책임감과 협력]

활동적이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대학생이 되어 축구동아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몇 년간 이 동아리에 애착을 가지며 활동을 한 것이 바탕이 되어 현재에는 동아리 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되고난 후, 부원이었을 때에는 보지못한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명이 넘는 인원들의 참여유도, 훈련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동아리홍보 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아리 스텝들과 회의를 하기도하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훈련프로그램도 알아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한번 더 노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면서 동아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조그만 대학 동아리에서의 회장이었지만, 스텝들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경험과 다른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팀단위로 이루어지는 R&D분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함께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에서 부터 시작하여 기계공학도로서 갖춰야 할 지식, 그리고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책임감과 협력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저는 자사의 R&D분야에서 발전가능성 있는 인재가 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파워트레인, 그 속에서 운동하는 피스톤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러한 움직임을 윤활하게 해주는 오일처럼 팀원들 속에서 윤활제 역할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